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디스인플레이션, 소비자보다 기업들에게 유리
- Bloomberg: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는 왜 중요한가?

[미국 금융]

- Bloomberg: 비자, 디지털 지불 사기 행위 막기 위해 AI 사용

[물류]

- Bloomberg: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포드와 GM 우회 선적

[부동산]

- WSJ: 사무실 임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싸다

[미중 경제]

- WSJ: 중국 전체 산업이익, 성장세로 전환
- WSJ: 중국내 미국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
- Bloomberg: 옐런 재무장관, "중국의 과잉 산업생산이 세계 경제 왜곡"
- WSJ: 미국 수입 금지 기업 목록에 중국 기업들추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H&M, 매출 회복으로 순이익 상승
- CNN Business: BYD, 수익 80% 급증하며 테슬라 추월
- CNBC: BJ's 동남부에 더 많은 매장 오픈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Disinflation is Helping Consumer Companies, Just Not Their Customers

디스인플레이션, 소비자 보다 기업들에게 유리

- 소매업체들과 식당들이 총 마진이 증가하는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들의 상품, 서비스, 노동 비용의 상승이 줄었기 때문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와 싸우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 러셀 3000지수에 포함된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평균 총 마진은 지난 분기에 그 전 분기의 31%에서 34%로 늘었다.
- 러셀 3000지수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3월 말까지의 경우 전년 4개 연속 분기의 감소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at Is the Fed's Dot Plot and Why Does It Matter?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는 왜 중요한가?

- 연준의 점도표는 연준 각 위원들의 연준 단기 금리 예상을 기록하는 차트다.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을 시사하게 된다.
- 총 19명, 즉, 7명의 이사와 12개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록한다.
- 점도표는 연준이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를 빠르게 할지 늦출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전한다. 또한 연준의 공식 입장과 시장의 입장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Visa Adds New AI Tools to Help Fight Digital Fraud on Payments 비자, 디지털 지불 사기 행위 막기 위해 AI 사용

- 비자사는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 새로운 AI에 기반을 둔 사기 근절 도구를 사용한다.
- 첫째로 신용카드가 없는 디지털 거래에서 사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둘째로 실시간 계좌 간 결제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 이 회사 측은 작년에 4백억 달러 규모의 사기행위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물류]

Bloomberg: Ford, GM Divert Shipments as Bridge Collapse Uperds Supplies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포드와 GM 우회 선적

-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붕괴로 미 자동차 공급망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 포드 자동차의 최고 재무 책임자 John Lawler는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부 해안이나 미국 내 다른 곳으로 부품을 우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GM 또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폐쇄된 볼티모어 항구로 들어오던 차량 선적의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GM은 성명에서 항구 폐쇄로 인한 "최소한의 영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WSJ: The Office Market Is in Turmoil. So Why Are Rents More Expensive?****사무실 임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싸다**

- 미국 사무실 임대 시장은 높은 공실률과 기록적인 규모의 서브리스 공간, 급증하는 관련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 관련 조사 기관인 CoStar 그룹에 따르면 미 평균 사무실 임대료는 2019년 4분기 때 34.92센트에서 현재 35불 24센트로 상승했다.
- 임대료 수준은 건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건물 주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잠재적인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공실률이 높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 가치가 낮아지면 재용자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WSJ 기사

[미중 경제]**WSJ: China Industrial Profits Return to Growth****중국 전체 산업이익, 성장세로 전환**

- 연초에 중국의 전체 산업이익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경제가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 수요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4년 첫 두 달 동안 산업이익이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에 2.3%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24년의 수치는 2023년의 낮은 기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국유 기업의 1, 2월 이익은 0.5% 증가했고 외국계 기업의 이익은 31.2% 증가했다. 사기업은 12.7%의 성장률을 보였다.

WSJ 기사

WSJ: American Business Stalls in China**중국 내 미국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정학적인 긴장, 그리고 무역과 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 중국의 자립 정책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중국 시장은 매력을 줄고 있다. 경제성장은 작년의 경우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했다. 소비자 지출도 줄었는데 특히 외국 브랜드에 대한 지출이 그렇다. 그칠 줄 모르던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 이들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산 수출이 줄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중국 투자가 줄고 있다.
- 미국 및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3분1도 안 된다.

WSJ 기사

Bloomberg: Yellen Warns China's Industry Ramp-Up Is Distorting World Economy

옐런 재무장관, “중국의 과잉 산업생산이 세계 경제 왜곡”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곧 방문할 중국에 대해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 능력이 글로벌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할 방침이다.
-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전세계 기업들과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격과 생산 패턴, 그리고 미국 회사들과 근로자들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슈를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WSJ: More Chinese Companies to Be Added to U.S. Import Ban List

미국 수입 금지 기업 목록에 중국 기업들 추가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입 금지 대상 기업의 목록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일부 기업의 공급망에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안보부의 Laura Murphy 정책 자문관은 화요일에 더 많은 기업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목록에는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착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무역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Murphy는 “우리는 기업 목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기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WSJ: Hennes & Mauritz Net Profit Beats Forecasts as Sales Pick Up
H&M, 매출 회복으로 순이익 상승**

- 스웨덴 패션 소매업체 H&M의 봄 컬렉션이 호평받으면서 2월 매출이 증가하여,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 H&M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억8천8백80만 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객 가격을 낮추고 10%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해당 업체의 목표이다.
- 수요일 H&M은 효율성 프로그램, 구매 비용 영향 요인, 그리고 우수한 비용 관리 비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제품 개선 및 마진 상승, 그리고 더 많은 가치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WSJ 기사

**CNN Business: BYD's profit soared 80% in the year the Chinese EV giant overtook Tesla
BYD, 수익 80% 급증하며 테슬라 추월**

- BYD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세계 최고 판매업체로서의 명성을 빼앗은 이후, 첫 연간 실적에서 80% 이상 수익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중국 선전에 소재한 BYD는 회사의 순이익이 2022년 1백66억위안(23억 달러)에서 작년 3백억 위안(42억 달러)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고 화요일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들의 성장 둔화 상황이라는 “복잡한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BYD가 해당 성과를 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BYD는 작년 말 3개월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로 테슬라를 추월했으며, 워렌 버핏의 지원을 받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다.

CNN Business 기사

**CNBC: Costco and Sam's Club's smaller rival BJ's Wholesale will open more clubs in Southeast
BJ's 동남부에 더 많은 매장 오픈 예정**

- 수요일 BJ 홀세일 클럽이 올해 남동부에 4개, 중서부에 1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제 창고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다른 지역에서 회원을 확대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BJ's는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인점이다.
- 새로운 매장은 메리빌, 머틀 비치, 팜 코스트와 웨스트 팜 비치, 카멜에 오픈될 예정이다. 또한, BJ 홀세일 클럽은 앞서 발표된 켄터키 루이스빌 지역

의 클럽을 포함하여, 올해 12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 이러한 움직임은 가치 중심 소매업체가 미국 매출 성장을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Coresight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신규 매장을 발표한 소매업체는 Dollar General, Burlington, Aldi이다.

CNBC 기사

[보고서]

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 반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은행 5곳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S&P의 이번 강등 조치가 지역은행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재점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P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بانک,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벨리 내셔널뱅크 등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